

광주시·전남도 민선8기 첫 송·신년 기자회견

“광주, 기회의 광장으로 만들 것”

■ 강기정 시장

돌봄·창업·영산강Y벨트 주요 사업 추진  
복합쇼핑몰 등 '5+1' 현안도 차질없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막연하고 실제 없는 희망이 아닌 돌봄, 창업, Y벨트로 대표되는 광주의 기회와 희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날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올 한 해 시장 성과와 내년 주요 시장방향 설명하면서 “2023년 광주는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광장이 되어 한다”며 돌봄과 창업, Y벨트 등 3가지 기회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우선 ‘돌봄’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해 내년 4월부터 기존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꾼 ‘광주다운 통합 돌봄’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 워킹그룹’을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창업’으로 대표되는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광주역 창업 벨트를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혁신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화산업 단지 조성과학 AI영재고 설립, AI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담은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의 성공도 자신했다.

강 시장은 2022년 올 한해 주요 시장 성과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보다 926억원 증가한 3조3081억원의 국비



확보를 최대 성과로 꼽았으며, 민생경제대책본부 운영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특례보증 융자지원 등 민생 정책, 다양한 시민과 만나 정례적으로 대화를 나눈 소통 시스템 정착 등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또 ‘5+1’ 현안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은 도시계획 변경과 기본설계가 끝나면 국가에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 지원형 복합쇼핑몰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민의힘이 약속했으며,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책무인 만큼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설명회가 함평에서 열리기도 했고, 대구와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원년”

■ 김영록 지사

글로벌 도정·행복공동체 등 3대 도정 제시  
청년·소상공인·농어업인 행복 시책 확대

₩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3년을 ‘세계로 뚫어보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원년’으로 선포했다. 민선 7기 이후 꾸준히 기반 시설, 기존 주력 미래 전략 산업 등 전남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온 김 지사가 충분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에는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도정 운영 방향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022년 도정의 주요 성과로 내년 국고 예산 역대 최대 8조6500억원 확보와 함께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캠퍼스 등 대도약을 이끌 핵심 신규사업 대거 완성을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개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타 통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76개사와 10조원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예타 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남도장터 법인화 및 남도장터US 오픈 등의 성과를 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남 오시리아 리조트, 신안 자은 씨원 리조트 등 명품숙박시설



확충, 세계갯벌자연유산 보전본부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등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갔다.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청년창업타운,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문화복지카드, 전국 최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면세유 인상차액의 50% 지원(2회), 재해보험료 자기부담금 10% 인하, 전국 최초 천원 여객선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대(8호점) 등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와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영호남 상생 비전선포식, 경기도와 상생협약, 남부권 영호남 조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여수박람회특별법 국회 통과, 74년만에 정부차원의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등 도민의 염원인 현안사업들이 해결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태원 국조 첫 날 기관보고...여야 컨트롤타워 공방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공방했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통괄해 대응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혜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가 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해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탤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두고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닉’ 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합참 “적 무인기 격추시키지 못해 송구...대응전력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며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

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에 우리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하여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힘 당대표 출마 선언...“총선 압승·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켜켜이 쌓아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싸우기보다 우리 당 내부에서 싸우는 일에 치중하거나, 큰 선거에서 싸워 이기지 못한 채 패배하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리더십으로는 차기 총선 압승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당권 경쟁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건 민심을 얻는 것”이라며 “나는 ‘민(民)해관’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